

# 테스트란 무엇인가?

박 동섭

[littleegan@gmail.com](mailto:littleegan@gmail.com)

#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
“활력”이라는 개념: “저 사람은 활력이 없다”  
“활력이 많다”

여기서 활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동패턴을 보고 판단하는 단순한 비유로서,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「활력물질」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에 축적되어 있거나, 소비되거나 혹은 측정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.

“지식”의 문제도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?

# 머리가 좋다는 무엇을 의미할까?

- “지식이 있다” “머리가 좋다”의 문제
- 그러나 그 ‘말’은 결코 사람 머리 속에 있는 ‘지식’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물질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.
-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
-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!

# 머리가 좋다는 무엇을 의미할까?

- 여기서 “지식이 있다’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.
- 하나는 어떤 특정한 문화의 구성원이「지식이 있다」라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.
- 즉 무엇을 가지고 「지식이 있다」라고 평가 받는 것은 문화에 의존한다.
- 예컨대 우리들의 문화에서 「지식이 있다」라는 전형적인 상황은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.

# 머리가 나쁘다는 무엇을 의미할 까?

-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국면의 사회적·물리적 상황이 「지식이 있다」라는 것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.
-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?
- I-R-E(교실담화의 패턴)
- 즉, 「지식이 있다」라고 하는 말과 행동도 그것이 성립하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고 적절한 장면과 타이밍으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「지식이 있다」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.

# 머리가 나쁘다는 무엇을 의미할 까?

- 우리들은 능력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(소박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 교육학 연구에서도)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.
-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소박론은 우리들의 문화, 특히 「학교화」(Illich, 1977)된 근대의 특징이지,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.
- 테스트는 「개인의 지식」같은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화장치이다.

# 테스트란 무엇인가?

- 그러한 테스트라고 하는 문화적 장치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「개인의 지식」과 같은 것이 가시화되어, 만들어지는 것이지
- 역으로 원래부터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「개인의 지식」이 있어서 그것이 테스트에 의해서 측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.

## 테스트란 무엇인가?

-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법 (지식 VS. 테스트)으로 지식과 테스트를 설명하지 않는 것,
- 즉 테스트와 그것에 의해서 가시화되는 「능력·지식」은 표리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# 테스트란 무엇인가?

-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물리적·사회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테스트라고 하는 artifact(문화적 인공물)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.
- 그러한 의미에서 「개인의 지식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화가 가시화하고, 물상화하는 (학교)문화적인 object인 것이다.

# 테스트란 무엇인가?

- 「지식=알고 있는 것」과, 테스트를 매개로 해서「지식을 가시화하는 상황」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학에 있어서 속도와 관측계의 관계와 비슷하다.
- 뉴턴역학이전: 속도는 운동체의 속성이라고 보았다. 마치, 지식이 개인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Mainstream Psychology의 입장과 같이....

# 테스트란 무엇인가?

- 그러나 현재는 속도는 운동체와 관측계와의 관계로서 정의되고 있어서, 관측계가 정해지지 않는 한 속도도 정의될 수 없다고 본다.
- 이것은 「지식」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시화하는 사회적·물리적 상황이 불가결한 것이고, 「지식」을 개인과 상황의 어느 쪽에도 환원시킬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.
-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다면 「지식은 관계 속에 있다」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.

# 테스트란 무엇인가?

- 결국, 지식의 관계론의 입장에 서면「개인 이 유능하다」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「유 능함」이 관찰 가능하게 되는 물리적·사회 적 상황(인공물 그리고 타자 등)을 제대 로 조직화(organize)한 결과임에 틀림없 는 것이다.
- 즉 「유능함」도 또한 물리적·사회적 상황 에 기초한 하나의 현상인 것이다.